

광주 특수목적 전기차 육성 본격화

1단계 성과보고회...소화방재용·소형 방역청소 전기차 등 기술 개발 2025년까지 150억원 투입...시작차 제작·부품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

광주시가 특수목적 전기차(PBV)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유관기관, 전기차 관련 기업 2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특수목적 전기차(PBV) 산업 육성 1단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특수목적용 전기차(PBV) 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할 특수목적 전기차 기술개발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기반차량)는 특수목적으로 제작된 전기차로 소화방재용 전기차, 소형 방역청소 전기차, 다목적 소형전기차 등이다.

광주시는 특수목적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억원을 투입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 주관으로 '수평적 EV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2021~2022년)에서는 진공성형기 등 차체·부품 설계 및 신속 제작 장비 9종을 구축했으며 시작차 제작, 부품개발 지원 등 총 161건의 기업지원을 수행해 매출 930억원 증가, 신규 고용 212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달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2023~2025년)에서는 전기차 기반 PBV유연조립 장비 등 5

종의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구축된 장비 활용 등을 통해 PBV부품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 135건 이상의 기업지원을 수행한다.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가칭)전기자동차 부품산업협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발기인을 위촉해 자동차 공업부품 확대를 위한 수요-공급 부품기업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지원, 특수목적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단위과제별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 사업 수혜 기업은 수시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에 문의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신걸 광주시 기반산업과장은 "지역 전기차 산업의 육성은 현재 시작 단계"라면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특수목적 전기차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공공기관 구조 개혁 실무절차

7개팀 구성 TF 첫 회의...중앙부처 협의·청산 절차 등 지원

광주시가 통합,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구조 개혁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공공기관 구조혁신 실무추진반(TF) 제1차 회의를 열고 통합 공공기관 출범에 필요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시 감독 부서,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총 7개 팀으로 구성됐다. 관공공사팀, 테크노파크팀, 사회복지서비스팀, 상생일자리경제재단팀 등 4팀은 기관 간 통합을 논의하고 교통공사팀, 기후에너지진흥원팀, 인재평생교육진흥원팀은 기능 강화 방안을 구성한다.

TF는 통합 조례안 개정, 정관 등 서류 정비,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해산법인 청산 절차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출범 준비를 거쳐 4월 공공기관

기능 조정, 8월 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 등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구조혁신안은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구조혁신이 마무리되면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 기관에서 20개로 감축된다.

김영선 광주시 전략추진단장은 "공공기관 혁신의 목표는 오직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에 있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의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청년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대출 보증·이차보전금 지원...광 관련 기업 저리 자금 융자

광주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지역 청년창업자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광주·국립·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시중 7개 은행과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 20억원의 10배수인 200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대상은 광주 소재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청년창업 기업으로, 협약을 맺은 7개 은행을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창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최대 1년간 연 3%의 이자를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광(光)관련 기업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 하는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4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시설·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정착실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청년창업가와 벤처기업을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창업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튀르키예·시리아 돕고 싶어요" 지난 28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한 성금 모금함을 들고 북구청사 내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김영록 지사 "호남권 SOC 조기 확충을"

기재부 예산실과 간담회...첨단의료 복합단지 등 현안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획재정부에 인공지능(AI) 첨단 농업용 융복합 지구 조성 등 광주·전남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호남권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의 국고예산 반영 등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역 균형발전 전을 위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당면 과제와 필요 예산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지역과 소통을 위해 도청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의

2024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은 국내 최대 농업 생산기지이고, 농어촌공사 등 다수의 농업 분야 공공기관이 집적화 돼 첨단농업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라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인공지능 첨단 농업용 융복합 지구'를 구축해 농업을 스마트화하고,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미래농업을 이끌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에 이미 조성된 바이오·의료 등 백신산업특구 인프라와 적극 연계해 강소

형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구축하겠다"며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 의료기술을 확보해 전남, 충북, 대구·경북의 국가 첨단의료 3각축이 완성되도록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가 지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호남권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예타 선정 ▲나주 금천-화순 구간의 광주 3순환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이다. 이 밖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개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조기 선정 및 예타 완료 ▲전남도 국립과대학 신설 ▲농협·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등 도정 현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특화품종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우수 수정란 분양...새 소득원 기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역 특화품종인 참조기와 부세 수정란 1만cc(600만 마리)를 생산해 도내 종자 생산 어가에 분양하는 등 양식 산업화에 본격 나섰다.

3월부터 분양하는 수정란은 영광지원 서해특산 시험장에서 선발 육성해 2~3년 동안 관리해온 참조기, 부세 어미에서 채란한 것이다. 양식 시 생존율이 높고 상품성이 우수해 어가의 새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정란 분양 어가에서 안정적 종자 생산이 이뤄지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참조기·부세 종자를 입식한 양식어가에 대해 입식부터 출하까지 성공적인 양식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광지원은 도내 어업인의 양식 활성화를 위해 참조기는 2013년부터 10년간 9만cc(6300만

개), 부세는 2020년부터 3년간 2만cc(1400만 개)의 수정란을 지속 분양했다. 지난해 참조기 사범어가 4개소에서 종자 판매로 약 7억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조기·부세 양식기술은 전남도에서 2005년, 2015년에 각각 기술 개발에 성공해 소량의 수정란이 양식 어업인에게 공급됐으나 초기 양식기술 부족으로 대량 폐사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2014년 이후에는 완전양식기술 매뉴얼을 확립해 해마다 수정란 분양 신청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오는 5월 자체 생산한 참조기·부세 종자 20만 마리를 칠산 바다에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 보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알베르 카뮈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